

BORYUNG
보령홀딩스

BORYUNG
보령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주)보령이 제정한 상으로 2025년 올해 21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는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하게 됩니다.

보령홀딩스, (주)보령은 앞으로도 '의사수필문학'의 진흥을 통해

의료사회와 대한민국 문화사업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www.boryung.co.kr

2025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건 · 이진환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 · 조영준
꽃을 든 남자 · 선자연
나를 왜 살려냈나요? · 박민
구원의 손길 · 김보규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 · 김하연
겨울의 끝에서 · 배철성
구원의 실마리 · 최세훈
아침의 가족 · 서정국

BORYUNG

2025

보다, 더+

고혈압 환자는

보다,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작	품	집

[제조 · 공동판매]

BORYUNG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TEL 080-708-8088 / 소비자상담실 FAX (02)741-5291

[공동판매]

inno.N

BORYUNG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곳에는 인생의 향기와
 여운이 숨어 있다.
 (피천득의 '수필' 中)

매년 마주하는 글 속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지한 고뇌와 열정이 가득합니다.
 미려함은 덜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경외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필문학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작품집을 발간합니다.

의사 대상으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2일
 발행처 보령출판스(주)보령
 편집인쇄 바이차이
 www.boryung.co.kr

2025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작	품	집		
차	례												

대상 ————— 06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건
 이진환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금상 ————— 14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
 조영준 추새로병원 · 내과

은상 ————— 22 꽃을 든 남자
 선자연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29 나를 왜 살려냈나요?
 박민 유성선병원 · 신경외과

동상 ————— 36 구원의 손길
 김보규 서울아산병원 · 내과
 42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
 김하연 하나로의료재단 · 병리과
 49 겨울의 끝에서
 배철성 포항여성병원 · 산부인과
 56 구원의 실마리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 심장혈관흉부외과
 62 아침의 가족
 서정국 중앙대학교병원 · 소화기내과

68 심사평 | 의창(醫窓)으로 본 인간의 삶, 그 수필
 이상규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 에세이문학 발행인
 박양근 문학평론가 · 부경대 명예교수
 송마나, 장미숙, 권준우(의사수필가) 에세이문학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전

이진환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대 상

—선생님.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긴장한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닌, 마지막까지 내몰려 절망한 사람의 조용한 비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명에는 어떤 대답도 무용해 보인다.

삼십 대 후반의 P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증세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여겼다. 자신이 이 공간, 이 진료실에 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는 목 졸리는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와 움츠러든 어깨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간략히 설명했다. 지칠 줄 모르고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 칼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민원인들과 이런 어려움을 모른 척 하는 상사에 대해서 말했다. 돌이켜보면 첫 만남의 순간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고, 그러한 희박한 느낌에 근거하여 가벼운 번아웃으로 판단했다. 취미를 물었더니 뜨개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취미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소량의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그녀에게는 증상의 빠른 호전을 약속해주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 나 자신도 믿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P의 증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진료실 내 감정의 습도가 올라가는 듯했다. 비 오기 전의 흠냄새가 비를 예고 하듯이,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냄새가 전해져왔다. 나는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나오고 있는 먹구름 같은 고통을 읽었다.

P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휴직도, 육아 도우미를 쓰지도 못했고,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난파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자살시도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일어났다. 연탄을 피웠고, 이웃주민의 신고로 그녀는 겨우 살았다. P의 남편이 왜 너만 유난이냐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자살시도를 한 다음 날 P는 내 진료실로 찾아왔다. 나는 외래기반의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막기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호자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P의 상태와 자살의 위험성,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길고 장황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남편의 대답은 “네.” 단 한 글자였다. 온몸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듯한 한 음절이었다. 나는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말없이 있었다. 내 옆에서 통화를 듣던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이었다.

버티고 버티던 인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일은 언제나 버겁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쌓인 먹구름이 비를 내리치는 것처럼 그녀는 울었다. 소리치지 않았고, 흐느끼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듯 눈물이 빗방울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였는데, 그녀

의 영혼은 전부 눈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격류처럼 밀어닥치는 슬픔에 나는 떠나려가지 않으려 애썼어야 했고, 빈 껍질만 남은 사람처럼 그녀는 울었다.

—선생님,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나요?

내가 두려워하던 질문이었다. P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참담했다. 쏟아지는 빗속에 혼자 서있는 인간의 심상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모든 길이 닫힌 채, 유일한 선택지는 자살뿐인 것처럼 그녀는 물었다. 그녀의 생명은 세상에서 떠날 듯 흔들리는 폭풍우 속의 연 같았다. 나는 어떻게 답해줄지 몰랐다. 내 말은 모두 힘을 잃은 듯 했다.

—이 진료실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남기고서 그녀는 나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꿈을 꾸었다. 내 진료실의 풍경이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나는 환자들이 앉는, 내 자리의 반대쪽에 앉아 있었다. 꿈속의 나는 슬펐고, 절박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질문도 모른 채로 무슨 말이든 좋으니 대답을 듣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 맞은편의 자리에는 빈 의자만이 있었다. 막막했다. 그 순간 나는 절대적 혼자였다… 천천히 꿈에서 깨어난 나는 안도감을 느꼈고, 안도감을 느낀 내가 싫었다. 이 절망감과 막막함은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느낀 건 P의 고통이었다. 공감은 단어 그대로 ‘함께(共) 느끼다(感)’라는 뜻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감은 몰이해의 해독제였다. 이 '자리 바꾸기'의 꿈을 꾸고 난 후, 나는 P의 고통을 생생하게 이해했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겪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버려진 듯한 그녀의 절망감을 알았다. 빈 의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내 마음 안에 담았다.

다행히 며칠 뒤 P는 다시 내 진료실로 왔고, 몇 번인가의 자살 시도가 더 있었다. 나는 그 순간마다 함께 있으려고 했다. 그녀는 다시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나는 깊이 연결된 마음으로 이해하려 애썼다. 대답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으로 설득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자살을 하라고 할 수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자살을 하라고 한다면 그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고,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녀의 고통을 몰라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양자택일의 사이에서 위태롭게 존재는 흔들렸고, 그러면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생명은 스스로를 돌보았다. 비가 내리는 P의 세상 속에서도, 죽음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그녀의 등 뒤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새벽과 황혼이 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고개만 돌린다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알기를 바랐다. 다만 그녀가 살기를 바랐다.

나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조금씩 P는 저항했다. 자신을 가라앉힌 고통의 바다에서 온 힘을 다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방치하는 상사에게 권리를 주장했고, 휴직계를 제출했다. 친정과 시댁에도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알렸다. 남편을 설득하기를 포기했다. 끝내 남편이 입원에 동의해주지 않자,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녀 스스로가 성취해내는 변화들을 나는 응원하고 지지해주었다.

P가 간 뒤에도 나는 빈 의자의 꿈을 생각했다. 그녀에게 더 나은 도움이 될 수는 없었을지를 때때로 고민했다. 그녀가 살았을지, 끝내 죽었을지에 관한 생각들이 이따금 침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진료실로 왔다 갔고, 나는 빈 의자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도 멈춤이 없다고 했다. 무너진 인간의 슬픔이 자꾸만 아프게 느껴졌다. 내 마음의 더듬이가 길어지는 듯했다. 나는 더 자세히, 더 깊게 알기를 원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 오던 사람들이 덮어 놓았던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직 자해로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던 중학생과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고 나면 스스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모두 자살을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저 아프지 않길 원했고, 그저 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도 분명 그랬을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P의 이름이 진료 대기 목록에 떠 있었다. 나는 졸아드는 마음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그녀가 웃으며 걸어 들어왔다.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른 P는 새하얀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죽고 싶지만... 가끔 이 진료실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맞은편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그녀는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였다. 나는 나 스스로도, 그녀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떠올렸지만, 굳이 말하지 않고 그저 빙그레 웃었다. 필요 없는 말로 기쁨의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 그녀는 일어서서 가디건을 만지며 말했다.

—이거 제가 짠 옷이에요.

…나는 멍멍한 감동에 말을 잊지 못했다. 황폐해진 그녀의 세상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부서진 잔해들을 그러모아 손으로 한 땀, 한 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그 옷은 날개옷 같았다. 무덤을 깨뜨리고 날아오른 나비 같았고, 부활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새롭게 자아낸 옷에서 먹구름 뒤에 가려졌던 해가 빛나는 것 같았다.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는 오직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나는 같은 시간과 고통을 견뎠고, 그 견뎌냄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P의 세상에서 다시 비는 내릴 수 있고, 때로는 먹구름이 지나가기도 할 터이지만 그녀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그녀 자신이 고통보다 크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녀가 고통에 잠겨있을 때,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우울증 환자는 극단적으로 좁아진 시야 때문에 선택할 자유를 잃는다. 그것은 실로 자살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살만이 답이 아님을, 한정되어 보이는 선택지 안에서

도 자유롭다는 시각을 되찾아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찰자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 설 때만 가능하다.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나는 영원히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저마다의 대답을 하지만 나는 이 대답들이 자살 앞에 선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존엄사가 인간의 권리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자살을 막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자살을 말하는 모두가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말이 힘을 잃는 곳에서 죽음을 막는 것은 다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공감일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도 끝끝내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힘은 원래부터 그녀 안에 있었다. 나는 고통 뒤에 잠깐 가려진 그 힘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건너 내가 찾아낸 그녀에게 어울리는 대답은 이것이다. 아마 그녀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이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내 진료실의 의자를 비워놓지 않으려 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몇몇 부분들은 실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금	상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

2022년 10월 29일, 한 내과의사의 기록

조영준 추새로병원 · 내과

1. 막이 내린 무대

나는 오랫동안 죽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살아왔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수많은 삶과 죽음이 겹겹이 교차하는 가장 농축된 무대였다. 흰 가운을 걸친 나는 그 무대의 연출가이자, 때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관객이 되었다. 응급실의 단말마, 중환자실의 희미해져 가는 모니터음, 임종의 마지막 호흡. 나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냉철함을 강요받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손끝은 무뎠어지고 판단은 흐려진다. 그래서 죽음은 내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라는 연극의 장막이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믿어왔다.

20년의 의사생활 동안 수많은 죽음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병으로 인한 죽음, 사고로 인한 죽음, 노화로 인한 죽음. 그 각각의 죽음은 나름의 원인과 서사를 지니고 있었고, 나는 그 서사를 분석하고 개입하며 결말을 조금이라도 늦추려 애썼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는 어떤 지식도, 어떤 훈련된 평정심도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나는 의사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 서울에 있었다. 학회 참석을 위해 이태원 인근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젊음의 웃음소리가 도시를 메우고 있었고, 그것은 기분 좋은 백색소음처럼 들렸다. 샤워를 마치고 막 침대에 누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속보』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서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추정...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압사’라니. 현실의 단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TV 속 화면은 내 부정을 무너뜨렸다. 내 숙소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골목. 수십 대의 구급차 불빛이 밤거리를 찢고 있었고, 절규와 혼돈이 도시 한복판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외투를 걸치고 현장으로 걸어갔다. 호텔 문을 열자마자, 바깥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밀도를 지니고 있었다. 환희는 사라지고, 비명과 울음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켜 나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였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소용돌이가 내 삶의 가장 잔혹한 밤으로 나를 삼켜버릴 것을.

2. 전장의 한가운데

현실은 TV보다 훨씬 잔혹했다. 좁은 내리막 골목은 이미 무덤이었다. 축제를 위해 화려하게 꾸민 젊은이들이 차가운 길 위에 겹겹이 쓰러져 있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그 시신 더미 사이를 헤치며 사투를 벌였고, 시민들은 절박하게 맨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의료진 계십니까! 의사 없습니까!”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한 개인에서 의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약물도 장비도 없었다. 이곳은 원칙도 존엄도 무너진 원초적 전쟁터였다. 포화 대신 비명이, 총성 대신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아수라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내 앞에는 앓던 얼굴의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화려한 분장이 창백한 피부 위에서 기묘하게 번져 있었다. 호흡 없음. 맥박 없음. 동공 산대.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을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넷... 서른. 그리고 인공호흡 두 번.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그날 밤의 압박은 차라리 절구에 가까웠다. 내 손바닥 아래서 갈비뼈가 부러져 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땀은 눈을 가렸고, 팔은 끊어질 듯 떨렸다. 옆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시민이 내 구렁에 맞춰 또 다른 환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같은 전우였다.

그러나 시간은 무의미했다. 한 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젊은이의 가슴을 눌렀다. 마치 끝없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음을 되살리려는 기계처럼. 그러나 매번,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은 뜨거운 생명이 아니라 차갑게 꺼져가는 청춘이었다. 나는 의사였지만, 그 밤에는 신의 그림자조차 닿지 않았다.

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CPR 구령, 울부짖음,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음. 절망과 환희, 구조와 관음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빌었다. 제발 꿈이기를. 눈을 뜨면 다시 따뜻한 호텔 침대이기를. 그러나 눈을 뜰 때마다 내 손 아래에는 또 다른 젊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잊지 못하는 얼굴이 있다. 안경을 쓴 스무 살 남짓의 청년. 나는 거의 30분 동안 그의 가슴을 눌렀다. 지쳐 쓰러진 시민 대신 또 다른 시민이 달려와 내 손길을 이어갔다. 우리는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잠시, 정말 잠시 그의 맥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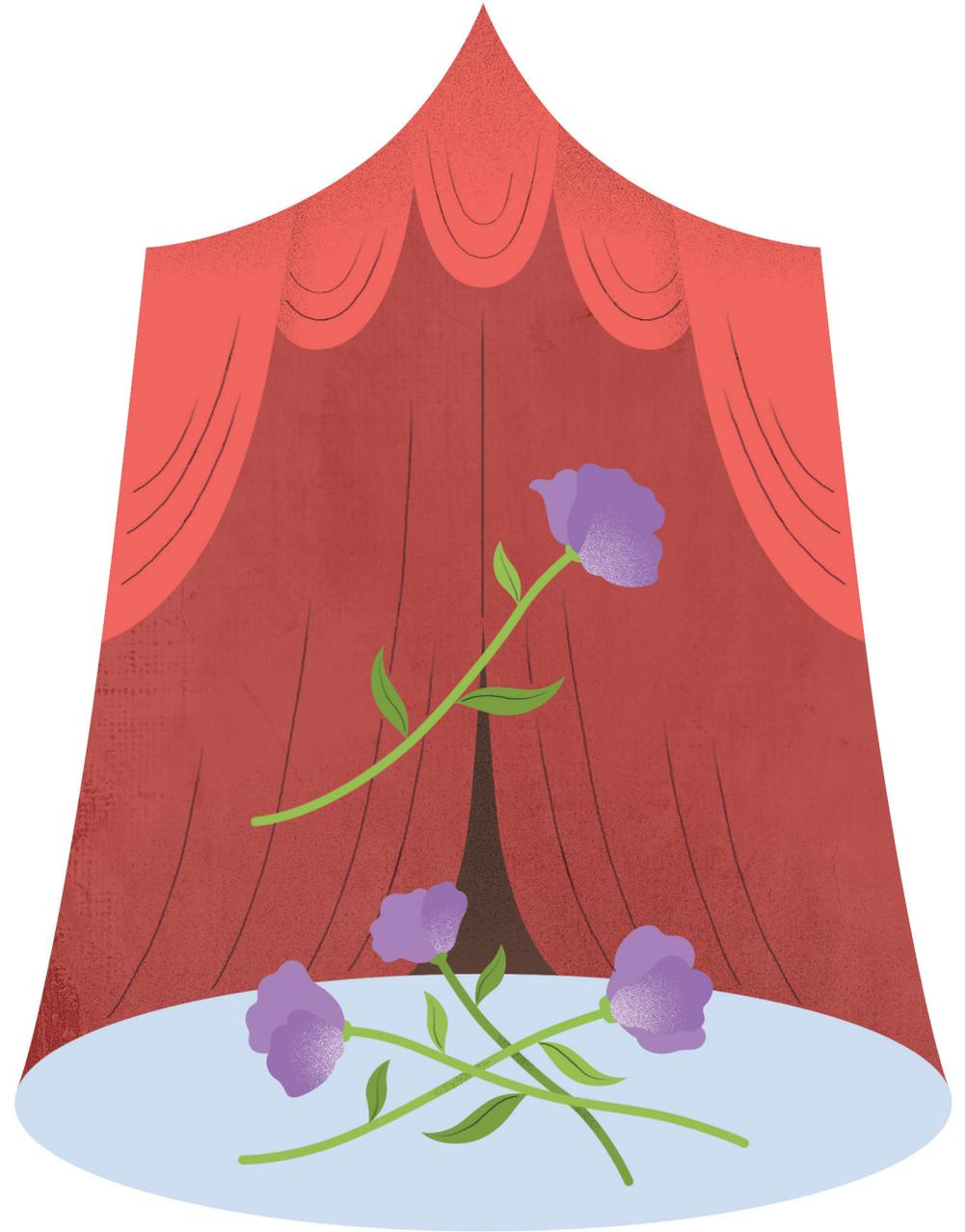
이 돌아오는 듯 보였다. “돌아왔어요!”라는 외침에, 희망은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침묵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무너졌다. 나는 그 위에 앉아 모든 힘을 잃었다. 파란 담요로 덮인 수많은 젊은 주검들이 눈앞에 즐지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저 늘어나는 숫자가 되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숫자를 막아내지 못한 무능한 증인이었다.

3. 비현실의 심연

병원에서의 죽음은 예측 가능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가족에게 작별의 시간을 주며, 존엄이라는 최소한의 틀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태원의 죽음에는 아무런 맥락도 절차도 없었다. 웃고 떠들던 젊음이 몇 분 만에 소멸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삭제’였다. 전등 스위치를 내리듯, 한순간에 꺼져버렸다.

나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하는 이 CPR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미 멈춰버린 심장을 향한 기계적 압박은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무력감을 가리기 위한 자기 위안인가. 나는 무너졌다. 죽음을 담담히 직시하던 이성, 이 무차별적이고 비논리적인 죽음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4. 경계에 서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이 짙은 시간이었다. 밤새 현장을 휘감았던 광기와 혼돈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았다. 구급차는 마지막 환자와 주검을 싣고 떠났고, 거리에 남은 것은 짓밟혀 버린 신발, 부서진 휴대폰, 끊어진 목걸이 같은 사소한 잔해뿐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전쟁의 유물 처럼 땅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과 무릎은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으로 굳어 있었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내 머릿속을 스쳐 가는 것은, 손바닥에 남아 있던 심장들의 마지막 떨림,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나는 의사로서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보았다. 그 경계는 너무나 허술했고, 종이보다 얇았다. 몇 분 만에 환희는 비명으로, 축제는 학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은 무력하게 스러져갔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똑같았지만 나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로비, 안락한 침대조차 기만처럼 느껴졌다. 이토록 평온한 일상 바로 곁에, 참혹한 지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우리는 안전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 아닐까.

그날의 비극은 내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다. 눈을 감으면 비명과 사이렌이 환청처럼 들리고, 창백한 얼굴들이 어둠 속에 떠오른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허망하고 쉽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눈부시게 소중한다.

그날 밤 내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살아내지 못한 시간, 이야기, 꿈과 사랑이었다.

나는 여전히 의사로서 죽음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제, 환자의 숫자 너머에서 그들의 세계를 본다. 그리고 다짐한다. 단 한 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 스러져간 젊은 영혼들에게 내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살아남은 자로서의 무거운 책무일 것이다.

그날 밤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생으로 써 내려 가야 한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꽃을 든 남자

선자연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은	상		
---	---	--	--

똑똑 똑, 리듬감 있는 특유의 노크소리가 울렸다. 생각날 때 오겠다면 예약은 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르는 환자. 올 때마다 초진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 작업복차림의 투박한 손에 오늘은 어쩔 일로 큼직한 장미 꽃다발이 안겨있었다. 불쑥 내미는 그의 손에서 진한 꽃향기가 배어나왔다.

“선생님, 제가 오늘로 병원에 입원한 지가 딱 3년이에요. 단주 3년 기념으로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우리 딸 다음으로 제일 고마운 사람이라서요.”

퇴원하자마자 재발할 줄 알았던 그가 3년을 버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나라는 게 더 의아했다. 병동생활과 투약, 퇴원과 외래방문까지

무엇하나 내 권유를 들은 적이 없던 고집불통이 아니던가. 생전 처음 중년의 환자에게 뜻밖의 꽃을 받고 멧쩍어진 내 표정과 의문부호를 읽었는지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저 사람 온통 제멋대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기다림이 뭘지 배웠어요.” 기다림이라. 그 단어가 수수께끼처럼 낯설었다.

단주 11년 경력에, 재발 전까지 자조모임 리더를 지낸 그는 이름난 병원들을 두루 거친 베테랑 환자였다. “병원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이 해봤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 지도 다 압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며 입원 첫날부터 선언을 했다.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지내는 통에 회진 때도 따로 찾아야 했고, 약에 의지하면 안 된다면서 아예 처방도 하지 말라 못을 박았다. ‘얼마 안가 어떻게든 뛰쳐나가겠구나, 처절히 깨져서 돌아오면 그때는 치료세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 나는 회피라 쓰고, 전략적 후퇴라고 읽는 소심한 선택을 했다. 정면승부로 얻을 승산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환자의 기세에 강대 강으로 맞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환자분 말씀대로 헤드릴 테니 대신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나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환자를 돕고 싶다는 원칙만 전달한 뒤 물러났다. 나는 그렇게 쫓대 없는 치료자가 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간호사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그는 내가 퇴근하기 전에 꼭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요청을 했다는 전갈

이었다. 나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 면담만큼은 내 주도하에 해보리라 다짐하며 일부러 병동 면담실이 아닌 진료실로 환자를 불렀다. 곧 조용한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별칭계 상기된 얼굴로 그가 들어왔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삼시간에 무거워졌다. ‘면담이 아니라 싸우러 온 건가’ 나는 비상벨 위치를 손으로 더듬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덩치 큰 남자직원에게 방 밖에서 대기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야 면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원 직전 여자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빌려준 돈도 다 떼이게 생겼다며 욕을 내뿜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게 다 엉망이 됐는데, 여기 갇혀서 단주니 평온한 마음이니 백날 귀에 떠든다고 뭐가 들리겠어요. 칼을 들고 찾아가서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는 선생님이 딱 사흘만 밖에 내보내주면 차분하게 매듭을 짓고 돌아오겠다, 나도 내가 겁이 나니까 딸이랑 동행하겠다, 선생님께 피해 안 가게 혈서라도 쓰라면 쓰겠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퇴원이나 외박 요구가 아니면 나를 먼저 찾을 리가 없는데,’ 나는 화려한 그의 단주경력에 가려, 닳고 닳은 중독자의 실체를 미처 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환자분,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자해와 타해의 위험, 금단증상, 중독자의 이분법적 사고와 충동조절 장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해 그를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퇴원은 어렵지만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 면회와 전화 사용을 최대한 돕겠다, 대신 하루 약 한 알, 프로그램 하나 참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두 시간 가까운 실랑이 끝에 그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스름한 저녁 터덜터덜 집을 향하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벼랑 끝 전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말은 고스란히 가을장마에 잠겼다.

새로 온 환자가 주치의와 담판을 지어 벌써 이것저것 허용이 됐다는 소문에 다른 환자들이 동요할까, 나는 다음날부터 마음을 즐겼다. 어렵사리 얻어낸 약속도 며칠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날의 성과와 차담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몇 번 더 진료실에 다녀갔다. 선생님 성의를 봐서 몇몇 시간에 참여해봤지만 형편없었다, 어떤 간호사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식의 불평을 주로 쏟아냈고, 나는 말문이 막혀 입을 떼지 못했다. ‘안 좋은 말을 들은 날에는 꼭 귀를 씻었다’는 영조의 일화를 따라하며 쓴웃음을 지어본 날도 있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버린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시린 바람이 부는 가을날이었다.

한 달 후, 치료의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 그는 퇴원했다. 꼭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의례적인 말로 여겼는데, 그는 예상을 뒤집고 일주일 만에 나타났다. 약은 이제 필요 없다며 통보하는 건 여전했지만, 그의 반갑게 웃는 표정은 처음이었다.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푹푹 푹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노크소리는 그렇게 3년간 이어졌다.

석 달쯤 지난 한겨울, 한 차례 불안한 고비가 찾아왔다. “선생님, 제가 사실 어제도 병원에 다녀갔어요, 퇴근하고 안 계신 줄 알면서도 하도 마음이 상송 생송해서 선생님 진료실을 한참 보다 갔어요” 했다. 마음이 힘들 때 술집 대신 병원으로 향한 건 대단히 어렵고 훌륭한 선택이라는 내 말에, 차라리 병원에서 겨울을 나는 것도 괜찮겠다며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입원에 대해 뜻밖에 호응하는 그의 간절함이 느껴져 나는 순간 멍멍해졌다. 더 자주 찾아오도록 신신 당부했지만, 그는 역시 자신의 페이스를 고수했고, 그 겨울 나는 환자의 재발소식이 들려올까 조마조마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나자 그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내가 참 부족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때 선생님이 권해준 책, 이제야 사서 읽었다고 보여주었고, 선생님 표정이 돌아가신 큰 누나를 닮았다는 열없는 말도 했다. 2년쯤 지났을 때, 환자의 딸 결혼식이 열렸다. 그는 사이대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는 농담을 하다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딸이 우는데, 아, 내가 단주하기를 참 잘했구나 싶었어요” 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휴지를 건넸다. 어느새 면담시간도 30여분 안쪽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때는 선생님께 참 죄송했어요.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도 제 잘못이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며 인내한 시간이 사랑과 정성의 발로는 아니었다. 술에 취한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찾아오더라는 흥흥한 소문들이 두려워 몸을 사렸을 뿐이고, 그의 입이 닫히고 귀가 열릴 때까지 기운을 아끼며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 나에게 그가 경청과 포용을 느끼고 마음이 열렸다면 그건 스스로 얻어낸 그의 몫이 아닐까. 가만히 장미꽃을 들여다보았다. 꽃이 시들더라도 오늘은 영원할 것처럼 믿고, 나는 오늘의 물을 주리라. 병동을 향하는 창문 틈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꽃잎이 반짝거렸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은	상		

나를 왜 살려냈나요?

박민 유성선병원 · 신경외과

신경외과 전공의 2년 차 시절, 의국에 윗년차가 비게 되면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집도의로서 메스를 잡게 되었다.

내 첫 수술 환자는 40대 남성이었다.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추락 도중 큰 나뭇가지에 걸려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분이었다. 뇌 경막외 출혈로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전반적인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다. 응급실 한쪽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은 불안에 떨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자살 시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동의서에 사인했다. 그렇게 나의 떨리는 첫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 전, 나는 CT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절개 범위를 정하고 출혈 부위를 예측하며 혹시 놓치는 것은 없는지 계속 생각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방안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뇌며 손끝의 긴장을 풀려 애썼다.

수술복으로 갖춰 입고 수술방에 들어서자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취가 시작되고,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환자의 두피에 메스를 댔고, 미리 그려둔 선을 따라 절개해 나갔다. 전동 드릴과 톱의 진동을 손으로 누르며 두개골을 열자 순간 피가 솟구쳤고, 나는 침착하게 흡입기로 피를 빨아내는 동시에 지혈했다. 봉합사로 피부를 꿰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은 한 번도 평온해지지 않았다.

수술이 끝나고, 결과는 CT 촬영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에게 그 CT 영상은 ‘정적 표’나 다름없었다. 화면에 영상이 한 장씩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 화면 속 뇌는 깨끗했다. 출혈은 말끔히 제거되었고 다른 손상도 보이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그제야 나는 깊은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환자의 아내에게 다가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내의 표정에는 안도감보다 걱정이 번져 있었다.

의국으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었다. 모두 이른 시기에 첫 수술을 훌륭하게 마쳤으며, 내가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될 거라며 축복해주었다. 그렇게 나의 첫 수술은 기쁨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가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나를 다급하게 찾는다는 소식이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려나?’ 하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 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시죠?” 하고 말을 건네려던 순간, 그의 첫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를 왜 살려냈나요?”

그는 원망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 냈다.

“왜 마음대로 수술한 거요? 난 돈이 없어서 자살한 건데, 살려놓고 수술비 내놓으라면 어찌라는 거요?”

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했으며, 자살 시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 여편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한 것”이라며, 치료비를 알면 기절할 거라고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원망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는 정말 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이런 데서 편하게 일하니깐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데, 나보고 다시 그걸 하라는 거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를 상상하는 듯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산 겁니까? 13층에서 뛰었는데.”

나는 위층에 분 바람에 몸이 날아가 큰 나무에 걸리면서 머리와 허리만 다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건 생각 못 했네... 아무튼,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사망 보험금만 적게 받게 생겼소”라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수술로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셈이었다. 나는 쭉그리고 앉아서 벗겨질 뻔한 구두끈만 다시 묶을 뿐이었다.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입원치료비는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그의 아내는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그 날 밤, 수액을 스스로 빼고 실밥도 풀지 않은 채 도망갔다. 나는 ‘그래도 어쨌든 수술은 잘 됐으니 된 거 아닌가’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며칠 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며칠 전에 선생님이 수술했던 환자 같은데, 의식이 없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그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파트 7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보호자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내가 멍하니 서 있자, 응급실 전공의가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나는 의사들이 하는 심폐소생술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떠나려는 사람을, 갈비뼈가 부서지게 심장을 누르며 억지로 붙잡고 있는 듯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의사에게 가로막을 권리가 있는 걸까? 환자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자유를, ‘의사’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도 되는 걸까?

나는 “심폐소생술 그만합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실 의료진들은 모두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포기해요.”

“자살 시도여도 일단 살리고 봐야죠.”

“DNR(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책임지실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그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삶을 포기하려는 환자의 의지가 더 강했는지, 환자는 결국 삶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성공적이었던 첫 수술은, 환자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나는 분명 환자를 살려냈는데, 그는 왜 다시 죽음을 택했을까. 그가 바라던 ‘살아있음’은 무엇이었을까.

돌이켜보면, 당시 나는 환자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내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일, 즉 심장을 뛰게 하고 수술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원했던 '살아있음'은 전혀 달랐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 나아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자유였다.

그 차이를 깨닫고서야 의사로서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되었다. 붙잡은 생명이 때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한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의 삶이 버텨낼 힘을 잃었다면, 과연 그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술이 끝나면 의사의 역할도 끝난다'라고 믿었던 나의 확신은, 환자의 현실과 절망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뇌 질환으로 무너진 환자와 가족들이 내 앞에 앉아있다. 예전 같으면 CT만 들여다보며 수술이 잘 되었다고만 설명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 그들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해준다. 그것이 꼭 의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길이 그 가족에게 덜 고통스러울지를 함께 찾아 나선다.

나에게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이제 수술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환자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이어갈 길을 함께 찾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구원의 손길

김보규 서울아산병원 · 내과

동	상		
---	---	--	--

구급차를 타고 환자 한 명이 응급실로 실려 왔다.

“20대 남자 mental change(의식 변화) 환자인데요. 지금은 drowsy(기면 상태)예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고 본인이 직접 신고했거든요…”

구급대원은 한참 동안 환자에 대해 인계하고는 조심스레 이런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사기 가해자로 조사받던 분이더라고요. 경찰분들도 아마 곧 오실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피해 금액을 배상할 길도 막막해 보이면 처지를 비관하며 죽으려 했지만, 막상 무서운 마음에 119로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뿔 때면 마치 내가 의학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다. 여느 때처럼 치열한 근무를

마친 어느 날,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방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혔다. 헛소리라며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말을 따라갔다.

그렇게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웹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니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소상히 출력되었다. 내 명의로 된 계좌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당의 본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의사 면허 또한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는 협박은 덤이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모두가 나를 백안시할 것이 틀림없었다.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내게서 압수한 현금카드를 통해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무혐의 입증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그 말이 그 당시의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돈이 인출되고 무혐의가 입증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나는 피의자로서 모든 행동을 그들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그 밖의 모든 자유는 박탈당했다. 퇴근 후에 안식을 누렸던 나만의 안락한 공간은 교도소의 독방으로 변모했다. 무채색의 천장과 벽으로 둘러싸인 세 평 남짓한 방에 갇혀 작은 창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시간은 지독히도 느리게 흘렀다.

응급실에서는 어김없이 사람을 살리려 애썼다. 한번은 심폐소생술 이후 살아난 환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병원에 찾아왔다. 이제는 밥도 잘 먹고 걸어 다닐 수도 있다며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라는 과분한 말을 내게 전했다. 직장에

서 나는 여전히 환자가 병마와 맞서도록 돕는 숭고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을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존경받던 선생님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범죄자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고 나니 어느새 내가 아닌 그 단어만이 나를 규정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모두가 환자에게 아픈 곳이 있지 않은지 물었지만, 불행히도 그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환자가 아니었다. 환자의 슬픔을 아무리 많이 견져내도 정작 내 아픔에 관심을 두는 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나는 속으로 점차 굵아갔다.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멈췄던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그 고동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다시 안온한 내일이 찾아오기를 염원했다. 아무리 애써도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를 마주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을 그의 인생에 목례를 보냈다. 그 순간에는 잠시나마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고민도 퇴색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내게 몸소 보여주었다. 나는 의사도, 범죄자도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앞에 살아 숨 쉬고 서 있었다. 무기력함과 슬픔은 거칠게 요동치는 맥박에 휩쓸려 나갔고,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때로는 사람의 아픔을 마주하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 나를 지탱하는 길이 되기도 했다.

마침내 내 계좌에서 돈이 전부 인출되던 날, 나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 몇 장에 서명함으로써 내 범죄 혐의는 완전히 해소되고 계좌 잔액은 복구될 것이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초기화되었을 때였다. 그들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그들이 오기만을 줄곧 기다렸다. 사태를 직시한 건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난 뒤였다.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깊은 절망이 되고야 말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훌쩍 지난 어느 겨울날,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할 방법이 더는 없으므로 수사가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다 못해 빚까지 지게 되었는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극심한 자책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내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눈을 붙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거듭 재생됐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서늘했다.

“선생님,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 산소포화도도 잘 나오고 있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웠다. 환자는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렸다. 내심 순조롭게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못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고개를 들었던 터라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옆에서는 보호자가 환자의 손을 잡고 연신 다행이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나요?”

그제야 그들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두 쌍의 눈동자를 마주하니 생각보다 술술 말이 나왔다.

“번개탄을 피워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건데, 산소 치료를 했어요. 뇌 MRI



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뒤늦게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해요.”

“...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제야 그가 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걱정과 불안으로 얼룩진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깊게 파인 눈동자, 축 처진 어깨..., 나는 그의 몸 곳곳에서 그가 미처 돌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서툴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금방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 덕분에 살아지더라고요. 환자분도 물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렇게 옆에 어머니도 계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힘내봐요. 병원에서는 우선 마음 편히 계시고요.”

맞닿은 손은 따뜻했다. 뒤늦게 환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봤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망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고 삶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라는 이름표와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넘어, 흉터를 지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상처를 입은 다른 이의 아픔을 어루만진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상처를 딛고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역경을 마주칠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고 지쳐 쓰러지기도 할 것이다. 끝내 죽음을 맞이해 이 여정을 마치리라.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내 손을 붙잡고 누군가 다시 일어설 것이고, 맞잡은 온기 속에서 나 또한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동	상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

김하연 하나로의료재단 · 병리과

메마른 씨락눈이 날리는 어느 날,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췌장암 다학제 진료실로 들어온다. 다소 피로해 보이는 남자의 뺨은 푸석하다. 눈가의 잔주름과 이마에 깊게 팬 고랑 몇 개가 세월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 약간 노란 활시위가 눈에 띄었다. 살짝 다문 입술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받아들이려는 의연함과 동시에 체념하지 않으려는 결연한 다짐이 느껴졌다.

진료실에는 흰 가운을 입은 예닐곱 명의 의사들이 둘러앉아 있다. 부부는 나란히 놓인 의자에 앉으며 의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다. 부인은 여러 의사의 시선에 잠시 움츠러든 듯했지만, 이내 용기를 되찾고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조직 검사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되었어요.”

잠깐의 정적.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환자는 아내의 떨리는 팔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는다.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고 나는 줄곧 만지작거리던 병력지로 시선을 돌린다. 각종 검사 결과가 빼곡한 가운데 며칠 전 내가 판독한 병리 보고서가 눈에 들어온다.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저분화성 선암). 눈을 감으면 현미경을 통해 보았던 병리 슬라이드의 모습이 캄캄한 공간 위로 선명히 떠오른다.

암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겁게 마음을 짓누른다. 암이 환자에 지우는 삶의 무게도 그렇지만, 병리의사인 내게는 암 진단의 과정 자체도 마찬가지다. 암,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 이 한 글자 안에는 수백 가지의 병리학적 분류가 있다. 암의 이름은 암세포가 기원하는 조직의 종류를 따른다. 이름이 붙은 암들은 각자 독특한 생김새를 지닌다. 병리의사는 전공의로서 수련 받는 4년 내내 암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 이를 익히지 않은 사람에게 병리 슬라이드 속의 풍경은 혼란스러운 세포의 배열로 보일 뿐이다.

인간은 얼굴을 보며 나이를 가늠하고, 성격을 짐작하고, 감정을 알아차린다. 지구 위에 인류가 등장한 이후 천억 개의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모든 얼굴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다. 고유한 얼굴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다. 현미경 렌즈 아래에서 암은 말없이 자기 얼굴을 병리의사에게 내보인다. 병리의사는 암에게 알맞은 이름을 붙여준다. 나는 매일 암의 얼굴을 읽는다.

암의 얼굴은 흉포한 맹장의 얼굴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는 흉악한 기세로 인체를 파고든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전장의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짓밟

으려 한다. 그는 승리에 눈이 먼 나머지 점령지를 풀 한 포기 다시 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든다. 암이 자라난 장기는 폐허가 되어 기능을 잃어버린다. 암은 주인의 생명을 꺼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공멸하고 만다.

“오늘 여러 과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제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치의인 소화기내과 의사가 설명을 시작하자 나는 상념에서 빠져나와 진료실로 돌아온다. “복부 CT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영상의학과 의사는 재빨리 CT 영상을 빔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준다. 그가 날렵하게 마우스의 휠을 돌리면 검은 바탕 위에 회색조의 장기들이 나비가 춤을 추듯 날아다닌다. “이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흐릿한 덩어리를 가리킨다.

조직 검사는 인체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어 만든 병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고 판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건조한 진단 업무에 치이다가도 문득 마음속에 물음표를 띄우고는 했다. 내게 이 조직을 보내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진단을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한 줄의 진단명으로 내리는 선고가 그가 가던 길을 어떻게 뒤흔들까? 다학제 진료실은 슬라이드 뒤편의 얼굴과 삶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일단은 췌장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집도할 간담췌외과 의사가 말을

이어 간다. “종양이 있는 췌장 머리 부분과 같이 담도와 십이지장 일부도 절제할 거예요.” 난도가 높은 수술이며,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도 장기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환자와 아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환자는 머뭇거리다가 묻는다. “잘 치료될 수 있겠지요?”

병리의사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소수의 의사에 속한다. 처음 다학제 진료에 참여했을 때는 익숙지 않은 상황이 긴장되고 어색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환자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진단에 절망할 때, 힘겨운 치료를 버텨낼 때, 임상사들이 그들과 함께 격렬한 감정의 흐름을 견뎌내고 있을 때, 나는 고요한 판독실에서 커피 향기를 맡으며 슬라이드를 본다. 그들이 마주하는 격정의 폭풍우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는 특권이 내게는 있었다.

나는 없는 사람처럼, 꺾다 놓은 건 아니지만 당장 쓸 데는 없는 보릿자루처럼, 빔 프로젝터가 비추는 영상의 그늘에 숨어 있다. 이따금 나도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내가 내린 진단으로부터 밀려드는 거친 고난의 파도에 휩쓸린 이들에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속삭여 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진료실에서 말을 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부부의 그늘진 안색을 보고 쿡쿡 찌시던 마음 한편이, 종양내과 의사의 온화한 말 한마디로 조금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다 같이 노력해 봐요.”

‘다 같이’라는 말이 마음 속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진료실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현미경 앞에서 나는 암이 별이는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는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하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생겨난 암세포를 인체는 침입자로 인식하여 면역계라는 방어군을 소집한다. 암이 세력을 넓혀가는 가장자리는 치열한 전투의 최전방이다. 암세포보다 훨씬 작은 면역세포들이 종양 주변부에서 필사적인 대항전을 벌인다. 날선 창칼이 설 새 없이 부딪히고 시퍼런 불꽃이 튼다. 현미경 렌즈 아래 펼쳐지는 사투는 너무도 생생해서 허공을 찢는 팽과리와 북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전장의 소란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는 말없이 전투의 현장을 지켜본다. 그곳에 내가 설 자리는 없는 듯해 등을 돌려 떠나려다가, 여태 손안에 단단한 활 하나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활시위에 물린 화살은 효시(嚆矢), 날아가면서 높은 소리를 내며 신호탄 역할을 하는 ‘우는 화살’이었다.

병마와의 싸움은 오롯이 환자 자신의 것이다. 의사는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암의 거센 공세에 아군이 지쳐 포기하기 전에 도착한 지원군이다. 그리고 병리의사는 지원군의 합류를 알리는 전령이다.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를 놓으면 화살은 전장의 창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낸다. 새로운 개전을 알리는 화살이 손을 떠나면 전령의 존재는 이내 잊혀지지만, 나는 효시에 승리의 기원을 힘껏 실어 보낸다.



“그럼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은 결정되었다. 이제는 계획대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환자와 그의 아내는 조용히 겹옷과 가방을 챙겨 들고 터벅터벅 출구를 향한다. 창밖에는 싸락눈이 어느새 함박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리 없이 내려앉는 눈송이가 켜켜이 쌓여서 얼어붙은 땅을 감싸안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떠나가는 환자의 뒷모습에서 눈 덮인 겨울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현미경 속 열띤 전투의 현장을 떠올리며, 침묵하지만 염원한다. 고단한 싸움의 끝에 치유의 희망이 있기를. 때로는 외롭겠지만 늘 춥지만은 않기를. 전쟁이 잦아들고 언 땅에 승기를 꽃을 즈음에는 점차 눈이 녹기 시작하고 곧 생명의 푸른 빛이 만발하기를.

환자가 진료실을 나서면 의사들은 일제히 차트를 다음 장으로 넘긴다. 병원의 시간은 쉬없이 흘러가고, 환자의 연쇄는 끊어질 줄을 모른다. 환자가 떠나간 뒤 그 자리에 남아 있는 빈 의자를 본다. 의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다. 그 미지근한 체온이 미처 다 식기도 전에 다음 환자가 들어와 앉고, 조금 전과 비슷한 대화를 반복할 것이다. 빈 의자에 다음으로 앉을 사람의 얼굴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암의 얼굴이 궁금해진다.

다음 얼굴의 주인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에 앉을지 모른다. 진료실의 의자에 새로이 와 앉을 사람, 다시 찾아올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새로운 슬라이드를 현미경에 올린다. 활시위에 또 하나의 화살을 메기며.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동	상		
---	---	--	--

겨울의 끝에서

배철성 포항여성병원 · 산부인과

동백은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다. 겨울이라는 하얀 캔버스 위에 붉은 숨을 내뿜으며, 스스로를 시험했다. 삶과 죽음이 맞닿은 순간, 그 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리라는 걸 알았다. 동백은 향기를 버리는 대신, 더 깊고 짙은 붉음을 선택했다. 벌과 나비는 향기를 쫓지만, 동백은 그들을 유혹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작은 꽃들을 위해 벌과 나비를 보내고, 자신은 동박새를 부르기 위해 단 하나뿐인 절정의 붉음을 완성해야 했다.

그 색을 만들기 위해 동백은 끝없는 인내를 견뎠다. 단순한 붉음이 아니라, 한 점의 망설임도 없는 ‘오묘한 붉음’이 필요했다. 공기의 흐름, 바람의 탄생과 소멸, 한겨울에도 따스한 햇살과 칠혹 같은 어둠, 따뜻한 빗방울과 매서운 눈발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다. 뿌리는 흙의 기운을 빨아들여 꽃잎을 물들이고, 스스로 수천 번 붓질하며 붉음을 완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백의 붉음을 볼 때마다 한 환자를 떠올린다. 그녀 역시 긴 시간을 견디며,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약 25년 전이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 자궁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였다. 보호자는 그녀가 임신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정상보다 두세 배 커진 자궁 안은 태아가 아닌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자궁을 살짝만 눌러도 핏덩어리가 하얀 시트 위로 울긋불긋 쏟아졌다. 마치 눈발 위로 떨어지는 동백꽃 같았다.

곧바로 수술과 치료를 병행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자궁적출술을 결정해야 했다. 응급 수술 후 출혈은 멈췄지만, 임신 호르몬 수치는 30만 단위를 넘었다. 용모상피암이 의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뇌까지 전이된 말기 암이었다.

그녀는 이후 3년 동안 시냇고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해에는 거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시피 했다. 어느 날, 나는 회진을 돌다 그녀의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창가 쪽 침대에서 그녀는 한 손으로 커튼을 살짝 젖히고, 겨울 햇살이 번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인기척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내 물음에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처럼 조용히 스며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요… 그냥, 바람이 좀 덜 차네요. 그거면 된 거죠, 뭐.”

말끝에 묘한 여운이 맴돌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병원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미 세 번의 심폐소생술을 견뎠고, 몸은 쇠약해져 손끝조차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 질문엔 단순한 계산이 아닌, 남겨질 이들을 향한 마음이 묻어 있음을 직감했다.

“가능한 보험 적용은 최대한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애들이 아직 어려요.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는 게… 미안해서요.”

말끝이 조용히 떨렸다.

“요즘은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건 아닐까… 하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선생님은… 죽는 게 무서우세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질문을 미루지 않을 얼굴이었다.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솔직히, 어떤 날은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무서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긴 싸움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게 지치는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향해 손을 내밀 듯 바라보았다.

“하루하루가 계속 싸워야 하는 날들이니까요. 이겨야 한다는 말이 꼭, ‘지지 말라’는 채찍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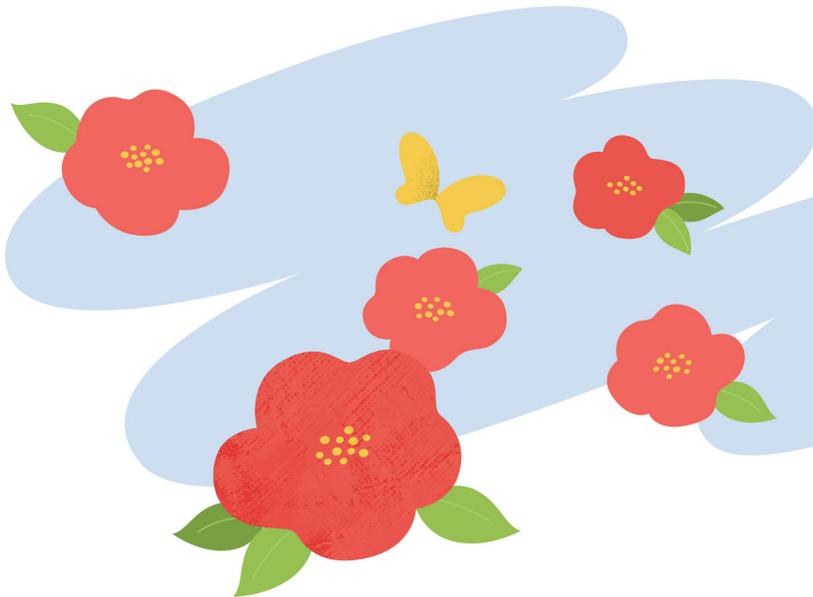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문장을 천천히 읊조리듯 깊었다.

“사실은요... 그냥 쉬고 싶어요. 하루만이라도, 아무 말도 없이, 숨만 쉬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상하죠. 이렇게 힘든 날에도요, 가끔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아직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어서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어딘가를 가만히 건드렸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겪었을 기나긴 투병과 거의 버티다시피 한 삶을 떠올렸다. 죽음은 패배인가? 아니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 선택권이 없지만, 떠날 때만큼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이 막 지나려던 시간이었다. 응급 호출을 받고 병실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몇 분이 지나 그녀는 다시 의식을 찾았다. 의료진이 자리를 비켜 주자,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고 차가웠지만, 그는 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힘들게 거의 다 갔는데, 다시 데리고 와 버렸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에는 다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누구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그녀는 스스로 내렸다. 그녀는 더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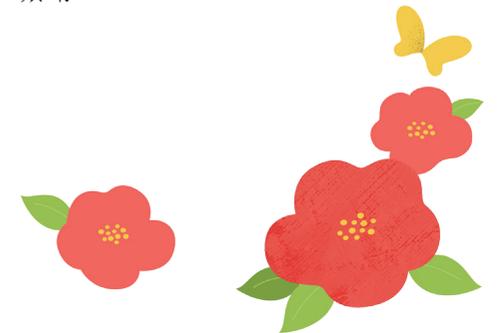
툭!

잘려 나간 꽃이 땅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진동이 여운을 남겼다. 바닥에 닿았지만, 꽃잎은 흔들리지 않았다. 떨어진 꽃은 여전히 오묘한 붉음을 간직한 채였다. 바닥에 닿은 동백꽃의 봉오리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 마치 바람이 다녀간 자리처럼. 동백이 꽃봉오리째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생의 종결이 아니다. 꽃이 절정을 맞이한 순간, 가지는 열매를 품기 위해 꽃을 내려놓는다. 꽃과 열매를 모두 지탱할 수 없기에, 스스로 꽃을 떨구고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동백의 붉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동백꽃은 끝없는 인내로 붉음을 완성했다. 그 붉음은 단순히 생명력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 동백이 꽃잎을 떨구고 나면, 그 자리에 여전히 붉은 잔해가 남는다. 마치 환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내며 온몸에 채워진 고통이 그 고요한 붉은 흔적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붉음이 그녀를 이루는 존재의 본질처럼 느껴졌다. 동백꽃이 붉음을 완성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본질은 시간의 끝자락에 남겨진 모든 것들의 생명력이다. 숨결을 멈추고, 이미 지나온 길 위에 놓인 것들이다. 결국 생명력은 ‘내려놓음’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환자가 겪은 끝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생명의 흐름에 동백은 남다르다. 엄동설한 속에서 바람은 칼날을 버리고 버렸다. 그리고 그는 절정의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던질 각오를 한다. 새들이 오묘한 붉음을 찾으려 하지만, 수분(受粉)의 목적을 다한 꽃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더는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 먼저 태어난 목숨의 숙명이다.

떨어진 동백꽃을 주워 든다. 그리고 속이 빈 꽃봉오리를 통해 하늘을 본다. 그 속으로 부드러운 봄빛이 내려오고 있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구원의 실마리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 심장혈관흉부외과

동 상

그녀가 나에게 구원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그녀를 만난 이후, 죽음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선물을 떠올린다.

예전에는 수술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친지의 죽음도 가까이 겪은 적이 없던 내가 흉부외과 전공의가 된 순간부터 갑자기 많은 죽음을 보게 되었다. 죽음이 흔하여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다.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렸을 때에는, 환자가 여럿 내 눈 앞에서 죽는다 해도 내 판단과 술기에 문제가 없었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만약 오늘 낮에 죽은 환자와 똑같은 환자가 오늘 밤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똑같이 치료할 정도는 되어야지 흉부외과 의사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죽음에 초연한 것이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덕목이라고 쉽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언젠가 아쿠아리움에서 인어 복장을 한 여성이 물 속에서 공연을 하다가 정신을 잃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것도 공연인가 숨죽이던 관람객들이 곧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의 모습이 나와 같다고 느꼈다.

나는 수족관 유리 벽의 이쪽에 있고 저쪽 물 속에는 환자들이 있다. 대부분은 물을 벗어나 이 쪽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사는 유리 벽 밖에서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로, 그 죽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이젠 익숙해져 비명을 지르지는 않지만 영혼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지도 못한다. 눈 앞에서 익사하는 생명을 보면서도 투명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한 번이라도 절절히 경험한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마도 죽음과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보는 동료들 모두 각자 자기를 보호하는 비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국 실패한다. 타인의 죽음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비록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무언가를 잃는 것을 의미하기에 역시 괴로울 뿐이다. 그렇게 죽음을 보며 괴롭고 죽음이 괴롭지 않아 괴로웠던 시기에 유미(가명)를 만났다.

작년에는 나도 응급실 당직을 서야 했다. 기흉 환자의 흉관을 넣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젊은 여성, 완치 가능성이 없는

다발성 폐전이, 재발성 기흉이라는 점 등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흉관을 넣을 곳을 확인하려 영상을 열어보니 ‘이렇게 두꺼운 흉벽은 처음 보는걸’ 할 정도의 병적인 비만. 응급실로 가며 나는 띠동갑 아래인 그녀에게서 질식, 익사,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내 구원을 만났다.

기흉을 발견한 것은 1주일 전. 하지만 예전에 흉관을 넣으면서 큰 고생을 하였던 유미는 입원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하필 내 당직 때에 응급실로 왔다. 기흉으로 숨이 찼는지, 아니면 기흉이 늘어날까 가만히 참았던 것인지, 한참 못 씻은 태가 났던 것에 반해 장난기 어린 표정이 살아있었다. 사신에게 몸이며 혼이며 반쯤은 잡아먹혔으리라 예상했던 나는 환자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여야 했다. 유미는 야심 차게 계획했던 탈선이 어이없이 실패한 어린아이 마냥 멧쩍게 웃으며, “아, 꼭 넣어야 하죠? 싫은데……” 했다. 흉관을 넣을 때는 아플까 걱정했고 다행히 순조롭게 거치된 후에는 미루던 숙제를 끝낸 듯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모르는 걸까, 자기 상태를? 하지만 넌지시 던진 질문들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인텔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해진 미래-죽음-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현재만 사는 사람인가? 그래,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해준다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했다.



중앙내과로 입원하였던 유미를 2주 정도 지나서 흉부외과 외래에서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유미를 몇 번 생각했던 나는 이미 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어둡게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 하지만 유미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면서 외래의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빨강, 노랑, 초록, 강렬한 원색을 반사해내는 과일 모양의 키링(key ring)들, 사과, 레몬, 딸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정말로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 숨을 단단히 채워 통통하게 만든 맥반석 달걀 크기의 밝고 따뜻한 키링에서 비현실의 이질감을 느꼈다.

아프고 난 후에 뜨개질로 키링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것이 좋아서요.”

현실만 살기에 용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완전한 오해였다. 유미는 누구보다 미래를 바라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나눠 담아 자기 뒤에 남은 친구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보낸다. 천연덕스럽게 밝은 강렬한 원색의 과일들. 놀랍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그 속에는 죽음의 운명이 담겨있지 않았다.

의료진을 포함한 주변인들 모두가 그녀를 보며 미리 애도의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이 키링은 그녀의 대답으로서 유미와 잘 어울렸다. 나 아직 살아있다고, 왜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이냐고, 그렇게 애처로움을 애써 감추려는 눈빛으로 자기를 보지 말라고, 투덜대는 듯 했다. 나는 가고 너는 남지만 너를 향한 내 이 작지만 밝은 마음을 같이 느끼자고 말한다. 아, 참 찬란한 유언이구나!

수족관의 이미지는 바뀌었다. 유리 벽 너머의 인어가 창문에 서있는 우리들 에게 아껴두었던 숨을 훑 불어 커다란 하트 모양의 거품을 만들어 낸다. 웃으며 손을 흔들다가 등을 돌리고 커다란 인어 꼬리로 물을 밀어내며 빠르게 멀어진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인어는 저 너머 미지의 세계로 사라지고 아이는 벌써 그리워한다. 쓸쓸하고 아쉽지만 그런 헤어짐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좀 더 생각하고 싶어서 키링들을 집에 가져와 서재 책상에 올려놓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오만 참견을 하는 늦둥이 막내딸이 때마침 아빠에게 왔다가 그것을 보고 “와, 예쁘다, 저 이거 가져도 돼요?” 하더니 대답도 듣는 등 마는 등 가져가 버렸다.

다음 날 여명이 갓 밝아오는 새벽 출근길, 현관 입구에 미리 내어놓은 아이의 책가방에는 벌써 키링들이 매달려 아련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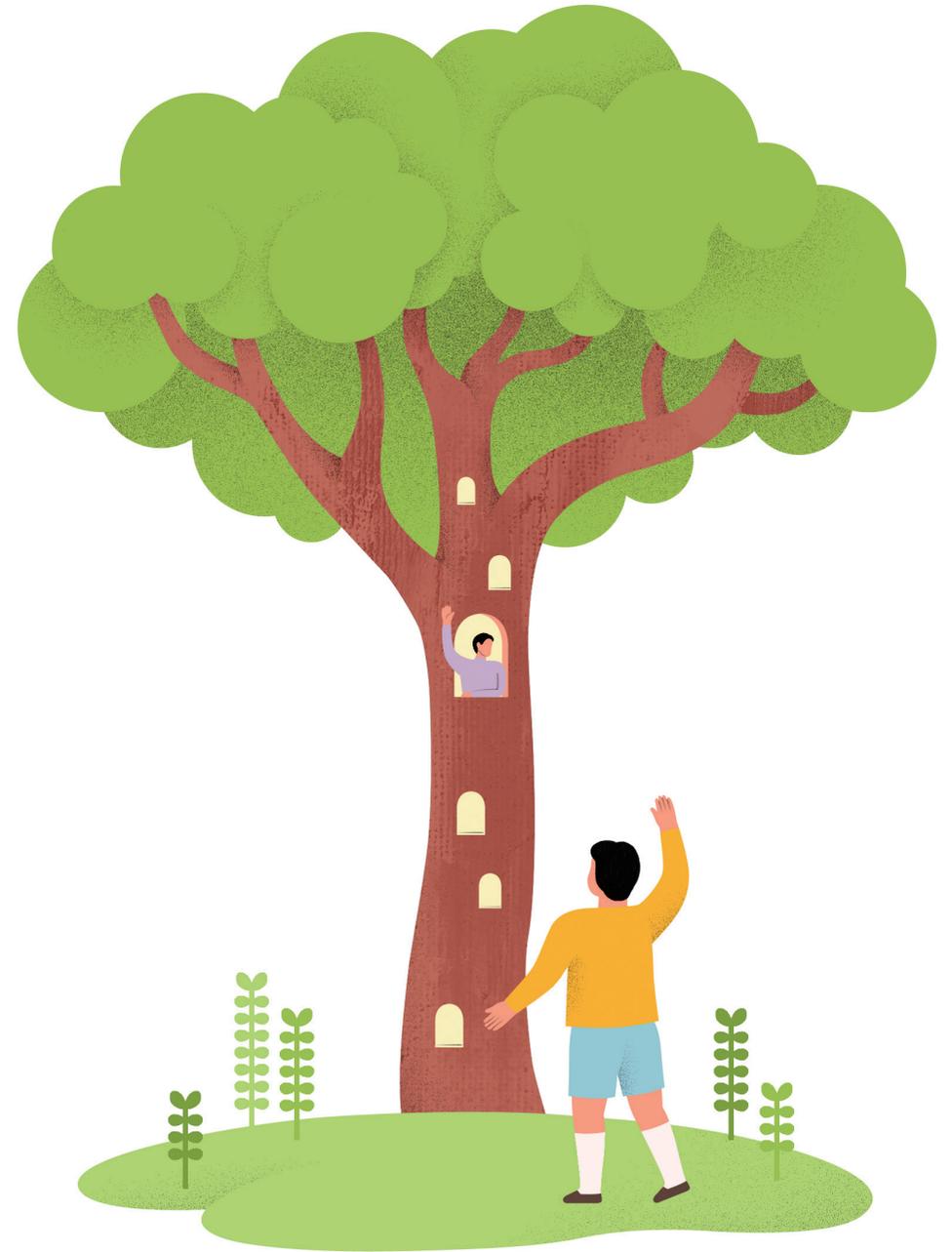
아침의 가족

서정국 중앙대학교병원 · 소화기내과

동	상		
---	---	--	--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밑바닥이 보일 만큼 투명했다. 내 아버지가 그렇고 내가 그렇듯 할아버지의 눈동자도 갈색이었을 테지만, 기억 속 할아버지의 홍채 가장자리는 오래 버려낸 칼날처럼 푸른빛이 감돌았다. 내 동생이 당신을 넘어서기 전까지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키가 컸다. 다들 할머니를 닮아 낮은 이마에 억센 턱, 그다지 크지 않은 키를 가지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한 뼘은 더 컸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꼳꼳한 나무나 장승처럼 높아 보였다. 할아버지는 부산의 옛 동헌, 동래읍성 아랫마을에 살았다. 할아버지 이름의 마지막 한자는 아침 조(朝) 자여서, 우리는 스스로를 아침의 가족이라고 불렀다.

아침의 가족들은 동래에 모여 살았다. 손녀 손자들은 아침마다 할아버지택에 들러 안부를 여쭙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할아버지가 교직



에서 퇴직하고 아침의 가족들이 하나 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갈 때, 막내아들이었던 내 아버지는 동래와 가까운 구서동에 자리 잡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예과 2학년일 때 폐암 진단을 받았다. 젊을 때부터 피웠던 담배가 원인이었다. 나는 하룻길 지하철에 구서동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래에 내려서 할아버지 집을 종종 들렀다. 아무런 핑계도 없이 놀러 갈 순 없어서 할아버지와 책을 한 권 만들기로 했다.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대학생을 위한 사자성어 외》 - 서석조, 서정국 공편

《大學生을 爲한 四字成語 外》 - 徐錫朝, 徐正國 共編

그냥 사자성어 책이 아니라 퀴즈 형식으로 만든 책이었다. 사자성어 중 한 글자를 틀린 글자로 적어 두고 어느 글자가 틀렸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쓰도록 공란을 두었다. 그 아래에는 올바른 사자성어와 성어의 뜻풀이를 써넣었다. 퀴즈를 만드는 일은 내 역할이었고 사자성어를 정하는 일과 뜻풀이를 쓰는 일은 할아버지의 역할이었다. 총 598개의 사자성어를 수록하고 맨 마지막에는 암송할 만한 도연명이며 두보의 한시를 몇 편 부록으로 실었다. 우리는 100부 정도를 인쇄해서 집안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나눠 가졌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찾아오는 옛 벗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는 일을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는 바빠졌고 할아버지는 상태가 조금씩 나빠졌다. 할아

버지는 내가 다니던 학교의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했다. 기력이 쇠하면서 기도와 식도를 구분하는 후두땀개의 기능이 떨어졌다. 숨 쉬는 일과 밥 먹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자칫 돌이 뒤섞여 숨 쉬는 기도로 밥이 들어가더라도 하면 심각한 폐렴이 올 수도 있었다. 가족들은 병원에 모여 할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우리는 기도에는 구멍을 뚫어 숨 쉬는 길을 확보하고, 위장에는 바깥의 피부로 이어지는 위루를 만들어 그리로 영양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목과 배에 구멍이 하나씩 뚫린 날, 나는 할아버지의 오후 간병을 맡았다. 기도에 뚫린 구멍으로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할아버지의 눈동자 가장 자리는 날 선 푸른빛으로 형형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아버지 병실에 들렀다. 간병인이 쉬러 가는 날이면 할아버지 식사는 나의 담당이었다. 위루로 연결된 주사기에다 영양제를 담아 천천히 위장으로 흘려 넣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앉아만 있어서 소화 안된다며 일으켜 세워 달라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겨드랑이에 팔을 밀어 넣어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는 혼자 서지 못해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댄 채 양 손으로 나를 살짝 껴안았다. 내 품에서 고개 숙인 당신은 어느덧 나보다 작아진 듯했다. 열은 숨소리가 들렸다. 단정히 빗어 넘긴 흰머리에서는 어릴 적 뛰놀던 동래의 멀고 아늑한 냄새가 배어 나왔다.

나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들을 기억한다. 당신은 의식이 있던 마지막까지 글 한 편을 붙잡아 쓰고 있었다. 그것은 시였다. 붉은 해가 지는 정경을 그린 시

였다. 그리고 꺼져가던 할아버지 눈동자의 푸른 불꽃. 풍화를 마치고 오랜 생을 마무리하는 거대한 나무. 거목의 느리고 고요한 쓰러짐. 당신이 책이라면, 나는 그 모습들이 당신에게 걸맞은 위엄을 품은 마지막 문장들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한다. 새벽을 열고 세상에 첫 빛을 들이는 아침. 누워있던 대기를 깨우고 선선한 바람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아침. 내 유년 시절의 하루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작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학교로 가던 아침의 등교길. 우리가 댕을 나서면 할아버지는 뒷마당으로 나와 우리가 학교로 가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다주곤 하였다. 그렇게 서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내게는 아침의 가족들이 사는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보였던 것이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작된 우리 아침의 가족에게 작년에 첫 손주가 태어났다. 내 딸, 우리 아침의 가족의 첫 손녀의 이름을 나는 하루라고 지었다. 이제 갓 한 살이 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면 아침의 햇살보다 환하게 웃는다. 하루를 품에 안고 그 작은 몸에 코를 파묻어 냄새를 맡으면 그리운 아늑한 냄새가 난다. 하루의 눈동자는 동그랗고 깨끗한 거울 같아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루의 눈 속에 있는 내가 비추어 보인다. 할아버지의 눈동자에 서린 어슴푸레한 새벽빛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건너 나에게서 하루의 깊은 갈색 눈동자 속에 깃들었을까?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만들었던 시절의 반짝이는 기억은 내게 주어진 할아버지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그런 기억일 것이다. 나는 언젠가 하루에게 이 모든 빛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어떤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의 웃음이 왜 아침 햇살을 닮았는지.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책을 만들자고 하였듯, 나 또한 책을 만들겠다는 핑계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만들 책 속에서는 키 큰 장승이 입구를 지키고 정겨운 동래의 냄새와 우리 아침의 가족들이 살아온 빛나는 기억들이 책장 사이사이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끝에는 내가 이렇게 적어 두겠다. “이제부터는 아침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던 한 아이의 눈부신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네가 스스로 첫 문장을 쓰려고 할 때, 두려움 없이 너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밝히는 새벽빛을 담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제	2	1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심	사	평	

의창(醫窓)으로 본 인간의 삶, 그 수필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는 총 76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세 명의 예심 심사위원이 1차로 20편을 선정하였으며, 본심에서는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을 가리기 위해 개별 심사와 합평 과정을 거쳤다. 본심은 응모자의 이름을 가린 채 오직 작품만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응모작들은 의사라는 직업적 시선, 곧 ‘의창(醫窓)’을 통해 인간과 삶을 성찰한 서사적이지 윤리적인 수필들이었다. 인간의 질병과 죽음, 생사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환자의 갈등, 그리고 의사로서의 윤리와 연민이 주요 주제를 이루었다. 생명 존중,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의료 시스템의 문제, 사회적 역할 등도 폭넓게 다루어졌으며, 직업적 체험을 문학적 사유로 확장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를 바라보며 의료인의 내면을 의학적 시선과 인간적 통찰로 교차 서술한 작품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응모작들의 공통된 주제 의식은 ‘의술의 창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심사 기준은 다음 네 가지였다.

- 첫째, 의료인의 시선으로 생명에 대한 휴머니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서술했는가.
- 둘째, 문학적 은유와 표현을 통해 내적 의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러냈는가.
- 셋째, 죽음보다 의술이 지향하는 생명과 희망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 넷째, 의료 현장의 다양성과 사실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가.

그 결과, 대상에는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건>, 금상에는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 은상에는 <꽃을 든 남자>와 <나를 왜 살려냈나요>, 동상에는 <구원의 손길>,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 <겨울의 끝에서>, <구원의 실마리>, <아침의 가족>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건>은 의료 현장성과 문학적 완성도를 고르게 갖춘 작품이다. 우울증으로 생사의 경계에 선 여성 환자가 뜨개질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가는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 정신과 의사인 화자는 환자의 내면 붕괴와 회복을 세밀하게 직조하며, 의술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명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체득한 생명 존엄의 가치가 탁월하게 표현된 수작이다.

금상 수상작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는 르포 형식의 현장감과 드라마적 긴장이 돋보인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젊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인 내과 의사의 기록으로, 전쟁터를 취재하는 중군기자처럼 냉정한 서술 속에 연이어 스러지는 생명 앞에서의 절망과 무력감이 강렬히 전해진다. 이후 호텔 방의 고요 속에서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결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은상 수상작 <꽃을 든 남자>는 3년에 걸쳐 진료한 '문제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 의술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의료인의 마음가짐을 따뜻하게 되짚으며 인간애가 배어 있는 작품이다.

또 다른 은상 수상작 <나를 왜 살려냈나요>는 첫 수술을 집도하는 신경외과 전공의의 시선을 통해, 경제적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환자와 그를 살려야 하는 의사 사이의 갈등을 진지하게 그렸다. '나는 누구를 위해 생명을 구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작품 전반을 이끌며, 직업윤리와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다.

동상 수상작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의사의 직분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였다.

<구원의 손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인간적 좌절 속에서도 직분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은 환자 곁에 있을 수 없는 병리와 전문의의 한계를, <겨울의 끝에서>는 붉은 동백꽃의 이미지로 죽음을 향해 가는 환자의 갈망과 절망을 그렸다. <구원의 실마리>는 의사와 환자를 수족관 유리를 사이에 둔 물고기와 구경꾼의 시선으로 대비하며 커플링의 상징성을 인용한 독특한 시선을 보여주었고 <아침의 가족>은 임종을 앞둔 조부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담아냈다.

올해 출판작들은 의료인의 일상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섬세히 포착하며, 수필이 지닌 문학과 직업윤리의 결합 가능성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생명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연민을 글로 새긴 모든 응모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심사위원 |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 에세이문학 발행인 이상규
문학평론가 · 부경대 명예교수 박양근
에세이문학 송마나, 장미숙, 권준우(의사수필가)



Lead with GEMZAR[®]

Gemzar[®] is indicated for NSCLC, Breast cancer, Pancreatic cancer, Bladder cancer, Ovarian cancer, and Biliary tract cancer¹⁾

GEMZAR[®](Gemcitabine)¹⁾

전문의약품

【원료 약품의 명칭 및 분량】 이 약(200mg) 1 바이알 중 주성분 젤시타빈염산염 (별규) 228mg 중 젤시타빈 염기로서 200mg / 이 약(1g) 1 바이알 중 주성분 젤시타빈염산염 (별규) 1.14g 중 젤시타빈 염기로서 1g
【효능·효과】 비소세포암)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1차 치료, 단독투여하여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고식적 치료 (재정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체장암의 1차 치료, (방광암)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 (유방암) 임상적으로 금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화학 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파클리탁셀과 병용 (난소암) 백금화합물 요법을 완료하고 최소 6개월 후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로 목적으로 카보플라틴과 병용 (담도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에 시스플라틴과 병용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제조원】** Eli Lilly and Company, Indianapolis, Indiana 46285, 미국 **【수입판매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우) 03127 Tel.080-708-8088/소비자상담실 Fax. (02)741-5291 http://www.boryung.co.kr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ferences

1.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젤자 제품 허가사항(Accessed on 2020,01,25)